

담양출신 '고하 송진우 선생' 127주년 추모식

장광호 편집국장 승인 2017.05.12 14:16

지난 8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원에서 거행
 향일 언론인 및 애국지사, 민족지도자로 '우뚝'



일제하 언론인으로 향일 애국지사, 민족지도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담양출신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생 127주년 추모식이 열렸다.

지난 8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원에서는 (재)고하 송진우 선생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동아일보 후원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 127주년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선생의 장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를 비롯

한 유족들과 김황식 전.국무총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광복회장, 김창식 (재)고하 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관계자, 광복회원, 학계, 언론인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약전봉독-추모사-추모강연-헌화 및 분향-추모의 노래-유족인사-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고하 송진우 선생은 1890년 담양 금성면 대곡에서 태어났으며 1908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뒤 귀국, 1919년 서울 중앙학교 교장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국민계몽운동,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등을 일으켜 일제의 탄압을 받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건국에 진력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서거했다. 이에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장광호 기자

장광호 편집국장 d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담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